

동성애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최남영¹ · 김현지²

¹강릉영동대학교, 부교수 · ²송호대학교, 조교수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Homosexuality in Health-related Fields

Nam Yeong, Choi¹ · Hyun Ji, Kim²

¹*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²*Songho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8권 제1호 2024년 3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8, No. 1, March. 2024

동성애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최남영¹ · 김현지²

¹강릉영동대학교, 부교수 · ²송호대학교, 조교수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Homosexuality in Health-related Fields

Nam Yeong, Choi¹ · Hyun Ji, Kim²

¹*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²*Songho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apers related to homosexuality,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and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Methods :** Using analysis criteria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211 articles between 1996 and 2022 were reviewed. **Results :** Quantitative research was 44.08%, qualitative research was 42.65%, literature and overview research was 11.37%, and mixed research was 1.90%. Research design 56.40% were academic journal papers and 38.86% were master's theses. Research subjects were 71.28% homosexual and 28.72% non-homosexual. The research fields were counseling and psychology 42.18%, social science 20.38%, education 14.69%, social welfare 7.11%, women's studies 5.21%, nursing 5.21%, humanities 2.37%, public health 1.90%, and medicine 0.95%. Key Variables were 25.59% for mental health-related studies, 19.43% for studies on perceptions of homosexuality among non-homosexuals, 13.74% for studies on homosexual identity experiences, and 10.43% for studies on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gainst homosexuals. **Conclusion :** The amount of research is steadily increasing. Sufficient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diverse life experiences of homosexuals using various research methods to understand and educate the subjects.

Key words : Homosexuality, Analysis, Research, Health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동성애(homosexuality)는 타인에 대한 애정적, 정서적, 성적 끌림으로 설명되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 동성에게 향하는 이성애와 구분되는 다른 성적체성(sexual identity)이다[1]. 동성애는 정신질환으로 인식되어 병리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1973년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Ⅲ-TR에서 동성애에 대한 항목이 공식적으로 삭제되었으며 최근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질병 분류의 개정, 병리적 관점에서 지지적 심리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치료자의 윤리적 지침 등의 개정 등[2]의 영향으로 성적체성의 다른 형태로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3].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여전히 차별적 시선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동성애 수용도는 36개국 중 32위로 10점 만점에 2.8점이었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5.1점보다 낮은 것으로, 한국인은 동성애에 대해 배척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 그 외 선행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성적인 문제를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5], 기존 이성애 중심 사회의 보편적인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낙인찍어 혐오감, 거부감, 위협감을 주는 용납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거부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6]. 하지만 이러한 흐름과 다르게, 동성애자를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비정상적이거나 성적 일탈로 생각하는 기존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선행연구도 있다[7]. 이에 대해 Son과 Choi[8]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한 국내외 인식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는 상당히 논의가 진척된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국내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는 간호대상자의 성적지향

등을 불문하고 이로 인한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해야 하며 취약한 환경의 대상자를 보호하고 돌보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 전문직의 특성상 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표명하고 있다[9].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전문가 집단 중 의료인은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가 매우 낮게 조사되었고, 의료인의 인권 의식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정체 내지는 후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10].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는 간호사 역시 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성애가 병리적 분류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확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관련 정보, 연구의 부족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2]. 그간 동성애에 대한 연구는 이성애자의 입장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 태도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았고[7], 그 외에 커밍아웃, 성적체성 형성,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경험과 삶의 질, 성소수자 스트레스 등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11-16].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간호학 영역에서의 연구는 아직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범위를 넓혀 보건의료 분야에서 동성애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2014년 Lee[17]의 연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논문 중 대부분이 호르몬 치료나 수술 등 의료적 조치와 관련된 임상적 연구로 최근 변화되고 있는 동성애의 관점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성애를 관심 개념으로 하는 다양한 관점의 연구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 및 정신건강 등의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동성애와 관련 연구의 종합적 분석은 현재의 시점에서 앞으로의 동성애 관련 주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질 높은 간호의 제공을 위한 교육적 자료의 기초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동성애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알아보고, 향후 동성애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성애 관련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동성애 관련 연구의 분야를 파악한다.

셋째, 동성애 관련 연구의 주제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동성애에 대한 선행연구를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동성애 관련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 대상의 범위는 국내 간호, 정신건강 및 건

강 관련 연구에서 동성애를 대상으로 한 국내 석, 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이며, 출판연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2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였으며 검색어 및 검색 방법 선정, 검색 데이터 베이스 선정, 문헌검색, 분석 대상의 문헌 논의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문헌검색 시 RISS, DBpia, Kiss의 학술연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동성애 하위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인 ‘레즈비언’, ‘게이’, ‘동성애자’, ‘동성애’, ‘퀴어’, ‘호모섹슈얼리티’, ‘성소수자’, ‘LGB’를 주요 키워드로 검색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검색 방법으로는 주요 용어를 연산자 AND로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된 문헌 중 간호학이나 건강, 정신건강과 무관한 내용의 연구 및 정치, 법, 문학, 종교 관련 연구, 평론 및 담론은 제외하였다. 일차적으로 선정된 논문은 총 241편이었으며 이 중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이 중복된 경우 학술논문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중복문헌을 제외하고 남은 논문은 226편이었다. 이 논문을 두 명의 연구자가 함께 논문의 제목과 초록 및 원본을 검토하여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의 부합을 재확인하여 학위논문 92편, 학술논문 119편의 총 211편을 최종 분석 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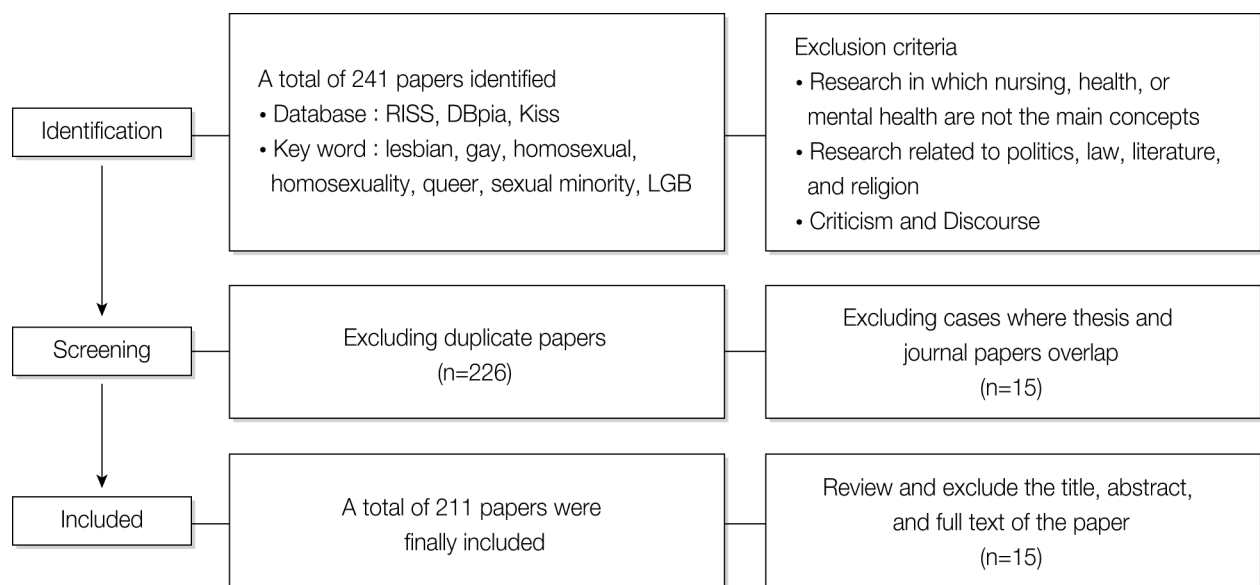


Figure 1. Flow Diagram of Paper Selection Process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합의하여 도출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객관화된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분석틀은 동성애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분야, 연구주제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양적 변화, 연구설계, 연구유형, 연구대상의 영역을 포함하였다. 양적변화에는 연도별 연구 편수를 분석하였고, 연구설계는 문헌 및 개관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로 분류 기준을 정의하였다. 연구유형은 박사, 석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연구대상은 해당 논문의 대상자가 동성애자인지 비동성애자인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논문이 명확하게 분류되고 있어 연구자 간의 논의를 토대로 청소년, 성인 동성애자 및 청소년, 성인 비동성애자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연구분야는 해당 논문이 어느 학문 분야에서 출간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게재된 학술지가 속한 연구분야 분류 기재를 따랐으며, 학위논문인 경우 해당 학과의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주제는 먼저 연구자들이 연구의 키워드 및 주제에 대해 전체적인 코딩을 진행한 뒤 분류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주제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세부 분류를 구성하였다.

4. 자료분석 및 방법

논문분석에 앞서 상담 및 심리 분야의 성소수자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18], 청소년 성소수자 연구 동향에 대해 분석한 Choo[19]의 연구, 성소수자 관련 질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3]의 분석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연구도구가 되는 분석틀을 결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의 양적 변화, 연구설계 및 연구유형은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3,18,19]의 분석틀을 따랐다. 일반적 특성 중 연구 대상의 경우 선행연구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상담심리 분야의 성소수자 연구를 분석한 선행

연구[18]의 경우는 상담자, 내담자, 일반인으로 분석틀을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청소년 성소수자 동향 연구[19]에서는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동성애, 성소수자로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소수자 질적연구 동향 분석을 한 선행연구[3]의 경우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특성에 따른 분류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동성애자와 비동성애자로 분석틀을 결정하였다. 연구분야는 청소년 성소수자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19]를 참고하였으며 실제 분석 과정에서 분석되는 분야의 분류를 따라 구분하였다. 연구주제의 분석틀은 성소수자 질적연구 동향 분석 연구[3]의 성소수자의 주요 경험, 비성소수자의 인식 및 경험의 분류와 성소수자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18]의 성소수자 인식, 성소수자 이해, 정체성과 정신건강 변인의 관계, 상담 관련 연구, 척도개발 연구, 개관연구로 구분한 분류 기준을 참고하였고 실제 논문분석 시 각 연구들의 키워드를 분류하고 수정하여 세부 분류를 구성하였다. 이후 분석틀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논문 각 10편을 선정하여 연구자들이 예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교차확인 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분석틀에 대한 합의를 거쳤다. 이후 3주 동안 각 연구자들이 합의된 분석틀에 따라 작성된 코딩표에 전체 논문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유선상의 논의가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의문점은 연구자들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Excel 및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틀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 빈도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동성애 연구의 양적 변화

분석 결과 국내 동성애 연구는 1996년 1편의 석사

Table 1. Number of Researches by Year

(n = 211)

Year	n	%
1996~2000	1	0.47
2001~2005	11	5.21
2006~2010	19	9.00
2011~2015	35	16.59
2016~2020	89	42.18
2021~	56	26.54

Table 2. Number of Researchs by Research Method

(n = 211)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2021~	Total n(%)
Quantitative research	1	6	10	16	39	21	93(44.08)
Qualitative research	0	4	6	17	43	20	90(42.65)
Literature research	0	1	2	2	6	13	24(11.37)
Mixed method research	0	0	1	0	1	2	4(1.90)

Table 3. Number of Researchs by Research Design

(n = 211)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2021~	Total n(%)
Journal	0	6	10	16	55	32	119(56.40)
Master's thesis	1	5	7	18	31	20	82(38.86)
Doctoral thesis	0	0	2	1	3	4	10(4.74)

학위 연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21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996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단위로 발행 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에서 2000년까지 1편(0.47%),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1편(5.21%),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9편(9.00%),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5편(16.59%), 2016년부터 2020년까지 89편(42.18%), 2021년부터 2022년까지 56편(26.54%)이 발행되었다. 국내 동성애 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처럼 국내에서 동성애 연구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2. 연구 설계별 연구 동향

국내 동성애 연구 동향을 설계별로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가 93편(44.08%), 질적연구는 90편(42.65%), 문헌 및 개관연구는 24편(11.37%), 혼합연구가 4편

(1.90%)이었다.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1년 이후 양적연구보다 질적연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3. 연구 유형별 연구 동향

국내 동성애 연구 동향을 연구 유형별 측면에서 보면 학술지 논문 119편(56.40%), 석사학위 논문 82편(38.86%)으로 학술지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이 대부분 이었고 박사학위 논문은 10편(4.74%)이었다.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학술지 논문이 119편(56.40%)으로 학위 논문 92편(43.60%)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이후 학위 논문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4. Number of Researchs by Research Subjects

(n = 195)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2021~	Total n(%)
Homosexual	Adult	1	7	10	25	49	24	116(59.49)
	Teenager	0	2	4	5	9	3	23(11.79)
Non-homosexual	Adult	0	0	2	6	25	16	49(25.13)
	Teenager	0	1	1	1	3	1	7(3.59)

* 연구 대상자가 동성애자와 비동성애자 모두인 경우와 성인과 청소년 모두인 경우 중복 기재함

Table 5. Number of Researchs by Research Field

(n = 211)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2021~	Total n(%)
Counseling psychology	1	6	7	11	38	26	89(42.18)
Social science	0	2	5	8	19	10	43(20.38)
Education	0	0	2	6	13	10	31(14.69)
Social welfare	0	0	3	3	7	2	15(7.11)
Women's study	0	2	1	4	4	0	11(5.21)
Nursing	0	0	1	0	4	5	11(5.21)
Humanities	0	0	0	2	2	1	5(2.37)
Public health	0	0	0	1	2	1	4(1.90)
Mecidine	0	1	0	0	0	1	2(0.95)

4. 연구 대상별 연구 동향

연구대상별 동향은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은 문헌연구 24편을 제외한 187편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 연구에서 대상자가 동성애자와 비동성애자 모두인 경우, 성인과 청소년 모두인 경우가 8편으로 중복으로 기재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139편(71.28%)으로 비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56편(28.72%)보다 더 많았다. 각각 살펴보면 동성애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16편(59.49%), 동성애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3(11.79%)편이었으며 비동성애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9편(25.13%), 비동성애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7편(3.59%)이었다(Table 4).

5. 연구 분야별 연구 동향

국내 동성애 연구 동향을 연구 분야별로 분석한 결

과 상담·심리학 89편(42.18%), 사회과학 43편(20.38%), 교육학 31편(14.69%), 사회복지학 15편(7.11%), 여성학 11편(5.21%), 간호학 11편(5.21%), 인문학 5편(2.37%), 보건학 4편(1.90%), 의학 2편(0.95%)으로 상담·심리학 분야의 논문이 가장 많았다(Table 5).

6. 연구 주제별 연구 동향

국내 동성애 논문의 연구 주제를 분석한 결과 동성애자 정신건강 관련 연구는 54편(25.59%), 동성애에 대한 인식 연구 41편(19.43%), 동성애자 정체성 경험 연구는 29편(13.74%), 동성애 차별 경험 연구는 22편(10.43%), 상담자의 동성애 상담 경험 연구는 17편(8.06%), 동성애자 전반적 삶 연구는 14편(6.64%), 동성애자의 상담 경험 연구는 11편(5.21%), 동성애자 파트너십 경험 연구는 11편(5.21%), 기타 12편(5.69%)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동성애 연구 논문의 주요 주제는 동성애자 정신건강과 동성애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Table 6. Number of Researchs by Key Variable

(n = 211)

	1996~ 2000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2021~	Total n(%)
Homosexual mental health	1	5	4	9	20	15	54(25.59)
Non-homosexual awareness	0	1	3	3	19	15	41(19.43)
Homosexual identity experience	0	2	4	5	14	4	29(13.74)
Discrimination experience	0	1	2	5	9	5	22(10.43)
Non-homosexual counseling experience	0	0	1	3	9	4	17(8.06)
Life experience	0	1	2	4	5	2	14(6.64)
Counseling experience	0	0	1	1	6	3	11(5.21)
Partnership experience	0	0	2	4	4	1	11(5.21)
Etc	0	1	0	1	3	7	12(5.69)

으며, 기타 주제로는 척도 타당화, 동성애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동성애자 신체건강 및 생식건강 등에 대한 연구였다(Table 6).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진행된 연구는 동성애자 정신건강 관련 연구로 자아존중감, 성적체성 노출, 자기효능감, 동성애 혐오감, 자기비난, 대인관계 유능성, 내면화된 이성애주의 등의 변인들을 확인하고 각 변수들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사고, 속박감, 자기비난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 등이 있었다. 이 중 다수의 연구에서 동성애자는 성소수자로 이성애자보다 삶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며 우울, 불안, 자살사고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동성애자의 긍정적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지지, 공동체 인식, 긍정적 정체성, 자기수용 등의 변인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동성애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할수록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 중 간호학 분야의 논문은 1편[A142]으로 동성애자의 스트레스 대처유형을 살펴본 연구였다.

두 번째로 많이 진행된 비동성애자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는 비동성애자의 편견, 동성애자에 대한 일반적 태도, 동성애 혐오, 동성애자 인식, 인권 의식 등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문화적 가치, 사회적 인

식 등의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종교, 나이, 지식정도, 성역할태도, 평등의식, 문화역량, 동성애자 지인 유무 등의 내부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중 간호사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는 6편으로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문화역량에 대한 고찰 연구[A18]와 간호사의 동성애 혐오와 간호역량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A49], 간호대학생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 제공 후 간호 태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A14] 인권 의식과 동성애 지식 정도를 살펴본 연구[A107], 간호사의 동성애자 간호 경험 유무와 동성애 혐오, 유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A217]가 있었다. 그리고 동성애자의 간호 경험을 살펴본 질적연구[A107]가 1편 있었다.

동성애자 정체성 경험 연구는 29편으로 정체성 형성 과정,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와 정체성 형성 후 커밍아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의 연구들이 있었다. 정체성 경험과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면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본인의 경험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정체성 확립을 이루어가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 요인들은 사회적 인식, 종교, 나이, 지식 정도, 성역할 태도, 동성애자 지인 유무 등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과 유

사하였다.

동성애 차별 경험 연구에는 동성애자들이 경험한 괴롭힘, 동성애 혐오, 반동성애적 폭력, 인권침해, 적대적 태도,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수의 연구에서 이러한 경험이 동성애자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일반인들의 인식에서뿐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도 존중받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상담자의 동성애 상담 경험 연구에서는 비동성애자인 상담자들이 동성애자를 상담할 때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그 요인으로서는 상담역량, 도움요인, 상담자의 동성애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 상담자의 동성애 상담 유능감, 내담자에 대한 불편감 등이 있었으며 동성애자 상담 경험에 대해 폭넓게 살펴본 질적연구도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상담자들이 동성애에 대하여 특별히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성애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에 대해 권고하고 있었다.

동성애자 전반적 삶에 대한 연구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 형성하고 받아들이며 커밍아웃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낙인이나 비판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논의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동성애자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중 간호학 분야에서 발표된 연구는 1편 [A105]으로 동성애자의 삶의 경험을 살펴보았으며 간호학에서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권고하고 있다.

동성애자의 상담 경험 연구는 동성애자가 실제로 상담을 받으며 경험한 내용에 대한 질적연구와 그 외 상담에 대한 기대, 도움추구 등에 대한 양적연구가 진행되었다. 동성애자의 상담에서 주 상담 내용이 사회적인 내용과 개인 심리적 내용으로 나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상담의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상담사의 태도에서 차별적 요소에 대해 주의하도록 권고하며 상담 시의 지침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동성애자 파트너십 경험 연구에서는 총 11편 중 8편이 질적연구로 성소수자 커뮤니티 경험, 정체성 인지 과정, 정신건강, 성병, 동성 교제 어려움 등에 대해 경험적 진술을 밝히고 있었다. 이외에 공동체 의식, 긍정적 정체성, 스트레스 대처, 정신적 웰빙 등의 상관관계 연구와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 드러내기, 연인관계 만족도, 자기효과, 상대방 효과 연구, 파트너 폭력 유형,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증, 관계 갈등 등 변수들간의 관계 연구를 포함한 양적연구가 3편이었다.

기타 연구 중 간호학 분야의 연구는 동성애자의 생식건강 및 신체 건강의 변인을 다룬 연구가 2편[A70, A186], 동성애자 문화역량 측정도구 개발연구[A210]로 모두 3편이었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 관련 국내 연구의 흐름을 확인하고,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추후 이루어질 동성애에 대한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성애 관련 논문은 2000년 이전에는 관련 연구가 매우 저조하였다.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이후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19] 결과에서 2000년 논문을 시작으로 5개년 단위로 논문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연구가 늘어났으며, 2015년 이후 연구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분석과 일치한다.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1970년대까지는 동성애를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분류하였지만, 여러 번에 걸친 개정 작업을 통해 동성애는 1987년 DSM-III-TR에서 정신질환의 분류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도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후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이전까지는 동성애자는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었고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삶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이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에는 동성애 연구가 저조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2000년 유명 방송인의 동성애 커밍아웃으로 사람들에게 동성애 인권과 관련한 많은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관심 밖이던 동성애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에 많은 논쟁이 시작되며 동성애 인권은 도리어 보수화 경향으로 퇴보를 겪기도 하였다[20]. 2010년에는 지상파 방송에 동성애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방영되기도 하였고 2011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에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는 등 동성애 인권에 대한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이에 따라 인식의 변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2014년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이 합헌으로 발표되는 등의 꾸준한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 결혼인정 등에 대해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15]. 이는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영향과 지난 몇십 년 동안 동성애자들이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으로 존재를 드러내어 대중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성소수자 동향 연구[18]나 청소년 성소수자 동향 연구[19], 성소수자 질적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3]의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연구설계에 따른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동성애 연구의 시작은 질적연구와 혼합연구로 시작이 되었다. 2000년 동성애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연구설계 면에서 양적연구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2019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 연구 동향 분석 연구[19]에서 2000년 이전 양적연구를 주로 사용하였다는 동향 분석과 일치한다. 하지만 선행연구[19]의 결과는 2011년 이후 시행된 연구에서 질적연구가 양적연구 수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비슷하게 이루어졌다는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2020년 이루어진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동향을 분석한 결과 58.3%의 연구가 양적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결과와도 차이가 있었다[2]. 이는 질적연구가 대부분 2019년 이후와 2020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0년 이전까지 이루어진 두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부터 동성애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약 10여 년간의 연구 결과는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들의 특정 주제에 대한 양적 수치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최근 3~4년간의 연구에서는 그들의 경험을 오랜 시간 직접 들어보고 하나의 과정을 도출해 내는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질적연구 및 양적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설계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삶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유형에 따른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학회지 논문이 가장 많았고 학위논문의 경우에도 2011년을 기점으로 그 숫자가 폭넓게 상승한 것이 분석되었다. 이는 2019년까지 동성애를 포함한 청소년 성소수자 연구 동향 분석연구[19]의 결과에서 발표된 학회지 논문 및 학위논문 비율과 유사한 결과이며,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연구[18]에서 2010년 이후 학위논문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시기는 앞에서 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20여 년간 동성애자들의 인권운동과 마스크를 통한 동성애에 대한 이슈의 가시화 등으로 한국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시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Yoo[20]는 한국인의 동성애에 대한 인권의식 변화 연구에서 2010년대는 고통화로 인해 세대의 보수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이 이를 상쇄할 만큼 동성애에 대해 진보적인 호의도를 보여주었던 시대라고 하였다.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애 관련 개념을 다룬 학위논문이 많아진 것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주제가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시사된다.

넷째, 연구 대상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으로 동성애자와 비동성애자 모두 청소년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동성애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보호자 동의 등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까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 단계상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성적체성의 혼란을 겪는 대상자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Choo[19]는 그의 연구에서 지금까지 청소년 성소수자 연구 동향 분석에서 연구빈도가 가장 높은 주제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을 병리로 바라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고 이들을 사회의 일탈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문제행동들을 결핍, 결함, 질병으로 설명하고 개입과 치료 그리고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의 입장에서 연구되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느끼는 정체성이 병적인 것이 아니며 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청소년 동성애자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분야별 연구 동향에서는 상담·심리 분야에서 동성애와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는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 상담 심리 분야 연구 동향 분석[18]에서 분석된 연구 논문 수치와 본 연구에서 분석된 상담심리학 분야 논문 수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m[21]은 그의 연구에서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 중심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며 이로 인하여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보다 자살사고, 우울증 등 부정적인 심리경험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였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거나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 기관이나 정신과 병원을 찾게 될 것이며, 결국 이들이 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첫 번째 기관이 상담 기관이나 병원이 될 것이다. 최근 상담심리학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심리학회 및 상담학회에서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성소수자에게 지지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22,23]. 국내에서도 2019년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동성애 전환치료, 전문가로서의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동성애 내담자 복지와 권리 존중 등의 문제로 회원이 제명되는 일이 있었다. 이후 상담심리 관련 학회에서는 동성애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18]. 하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현장의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도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는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장애물로 인식되기도 한다[25]. 간호사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면 만나는 의료인 중의 한 명일 것이다. 또한 간호사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 혼란의 문제가 아닌 신체·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도 만나야 할 의료인이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병원을 방문해 자신의 정체성을 커밍아웃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을 찾게 되었으나 의료인의 편견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은 동성애자에게 부정적이었던 태도가 점차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관점의 변화가 제시[26] 되고 있는 시대에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특히 간호사는 전문직 의료인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분야에 비해 간호 분야에서의 동성애 관련 연구의 절대적인 숫자의 부족은 간호 분야의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 분야에서 동성애 관련 논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할 만한 상황이지만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이해, 교육, 편견의 수정이 이루어지려면 간호학문에서의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연구주제별 연구 동향에서는 동성애자 정신

건강과 관련된 논문 수치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비동성애자의 편견, 일반적 태도, 동성애 혐오, 성소수자 인식, 인권 의식 등과 관련된 연구가 많았다. 이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연구[18]에서 정신건강 탐색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성소수자가 겪는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연구자들 간에 인식을 함께할 수 있다고 밝힌 견해와 일치한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주제로는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외에도 우울, 불안, 자살사고, 심리적 불편감, 소수자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연구주제는 네 번째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던 차별적 경험의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주제로 아직까지 동성애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대부분이 그들의 부정적인 심리적 측면, 불편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동성애자가 직접 경험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대한 인식이 동성애자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Kim 등[15]은 그의 연구에서 간호사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무력감, 사회적 지지의 부족, 편견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상자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대상자들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되었던 주제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을 측정한 연구들이었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동성애 혐오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을 오히려 타자화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27]. 국내외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자의 인권운동과 더불어 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시각은 동성애자들에게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도 함께 변화되어 갈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동성애자들의 정체성 자각, 정신건강, 그들의 생활 전반에도 많은 변화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동성애를 우리 사회의 비정상, 혹은 비주류로 보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비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 바라보는 편견에 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동성애 혐

오를 줄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의 정체성 경험과 관련된 연구의 결과에서 동성애자들은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받으며 동성애적 정체성에 대한 외부적인 부정적인 인식과 내부적인 인식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성소수자 연구의 동향을 분석했던 선행연구[19]에서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동성애자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Heang[28]은 그의 연구에서 동성애자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은 결과적으로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정신적 웰빙을 증가시킨다고 말하며 동성애자의 긍정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간호학의 측면에서도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을 돕기 위해 정체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절한 간호를 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자의 동성애 상담 경험 관련 연구에서 상담역량, 도움요인, 상담자의 동성애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 상담자의 동성애 상담 유능감, 내담자에 대한 불편감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동성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으며 상담자에게 동성애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함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가 직접 상담 받은 경험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상담사의 차별적 요소에 대해 지적하며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2020년 진행된 국내 연구 동향 연구[18]에서 동성애자 상담 관련 연구가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동성애자 대상자를 위한 상담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교육 훈련 등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못함을 알 수 있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성은 간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국내 연구의 흐름을 확인하고,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동성애에 대한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국내 동성애 관련 논문 총 211편을 분석한 결과 동성애 관련 연구는 199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1년 이후로는 양적연구뿐 아니라 질적연구도 함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대상자 측면에서는 동성애자, 비동성애자 모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고 연구 분야로는 상담심리 분야에서의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주제 측면에서는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관련된 연구주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동성애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동성애에 대한 연구 과제 및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으나 국내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국제 동성애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며 한 나라의 이슈는 한 나라 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동성애 관련 국내·외 연구를 살펴볼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swers to your question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sexual orientation and homosexualit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8.
2. Park JE, Namkoong M, Chung SJ.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unseling Experiences of Homosexual Clients: Focusing on Lesbian Cli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9;31(4):997-1021. <https://doi.org/10.23844/kjcp.2019.11.31.4.997>
3. Lee HJ, Kim MC.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Trends related to Sexual Minoriti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21(11):407-418.
4. OECD.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France: OECD; 2019 March 23. https://doi.org/10.1787/soc_glance-2019-en
5. Kim HM, Yu KL. Heterosexual Men and Women's Perceptions of Gay Men using Concept-Mapp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0;32(1):417-438. <https://doi.org/10.23844/kjcp.2020.02.32.1.417>
6. Jung AK, Yoon EH. Exploring South Korean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s Same-Sex Relationships, Lesbians, and Gays: A Qualitative Stud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0;32(2):583-608.
7. Ahn LS. Subjectivity about Sexual Minority : A Q-methodology Approach.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8;18(1):527-539.
8. Son JS, Choi KJ. A Study on Chang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ceptions of Homosexuality: focused on psychiatry.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2022;15(1):135-153.
9. Korea Nurses Code of Ethics. Korean Nursing Association [Internet]. 2023[cited 2023 February 28]. https://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10.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law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ternet].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6 [cited 2022 May 18].
11. Kim YS.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and Minority Stress on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Among Sexual Minorities. [master's thesis]. Seoul: Soongsil University; 2016. p.1-94.
12. Kim HY. The Study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gainst Women with Sexual Minority - Focusing on Lesbian Feminism. Journal of Women's Studies. 2018; 28(2):183-214. <https://doi.org/10.22772/pnujws.28.2.201810.183>
13. Kim HJ, Shin JH, Kim HS, Yon KJ. A Consensual

-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ly Anxious Experiences Among Undergraduate Males with Homosexual Orient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15;34(4):811-841.
<https://doi.org/10.22257/kjp.2015.12.34.4.811>
14. Shin SB. A Study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f Gay Men and Lesbian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3;33(1):380-415.
<https://doi.org/10.15709/hswr.2013.33.1.380>
 15. Kim HJ, Jang MY, Kim JH, Hong HJ, Song JH, Kim L, Shin SH. Life of Homosexuals in Korea.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9;25(1):69-80.
<https://doi.org/10.14370/jewnr.2019.25.1.69>
 16. Lee SW, Yon KJ.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ense of LGBT Community and Positive Identity on the Well-being of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in Korea: The Mediating Role of Minority Stress Coping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0;2(2):639-666.
 17. Lee HM, Park JY, Kim SS. LGBTQI Health Research in South Korea : A Systematic Review. *Health and Social Science*. 2014;36(9):43-76.
 18. Namkoong M, Park JE. A Content Analysis: Research on Sexual Minoritie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0;1469-1498.
<https://doi.org/10.23844/kjcp.2020.08.32.3.1469>
 19. Choo JH..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f Sexual Minority Youth in Korea : Implications and Task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19;25(6):533-560. <https://doi.org/10.24159/joec.2019.25.6.533>
 20. Yoo EH. Changes in attitudes towards homosexuality in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 2018;44(3):185-209. <https://doi.org/10.15820/khjss.2018.44.3.009>
 21. Kim HJ, Kim HS. Systematic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Minority Orientation and Suicide Risk.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18;37(2):185-220.
<https://doi.org/10.22257/kjp.2018.06.37.2.185>
 2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practice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The American Psychologist*. 2012;67(1):10-42. <https://doi.org/10.1037/a0024659>
 23. Amney H, Pete F, Margarita M, Amanda B, Hugh CC, Bob L, et al. Associa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Issues in Counseling.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2012;7(1):2-43.
 24. Seo YS, Lee JL, Cha JH. The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religiosity, authoritarianism, and cultural values on korean college students' homophobia.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6;18(1):177-199.
 25. Lee HJ, Sung JS. A study 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support for lesbian and gay human right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2016;14(2):109-119.
 26. Kim MO, Ha JY. A study on sexual autonomy, attitude towards homosexuality,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8(3):723-732.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3.068>
 27. Smith, L, Shin, R, Officer, L. Moving sounseling forward on LGB and Transgender issues speaking Queerly on discourses and microaggress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012;40(3):385-408.
 28. Hwang DB. A relationship between minority stress and well-being of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in Korea :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lesbian, gay, and bisexual positive identity and psychological sense of LGBT community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20. p.1-84.